

선진 전기공사타운 벤치마킹하다

류재선 회장·김성관 이사장 등 26명, 일본 교육기관 3곳 탐방

킨텐인재센터·도쿄전력 등 방문
교육커리큘럼·관리방안 등 확인
獨·美 등 사례들도 둘러보기로

시공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전기공사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선진시장인 일본을 다녀왔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전기공사타운 선진사례로 벤치마킹 할 교육기관 3곳을 둘러봤다.

이번 '전기공사타운 선진사례(일본) 답사'에는 류재선 회장과 김성관 이사장 등 협회·조합 주요 인사들과 삼정회계법인 등 실무진 26명이 참가했다.

답사단은 전기공사타운 조성 벤치마킹을 위해 지바현과 도치기현, 도쿄 등에 위치한 일본의 전기공사 교육센터인 ▲킨텐인재개발센터 ▲동방전기공업 코야마 교육센터 ▲도쿄전력 홀딩스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의 교육시설과 커리큘럼 등을 폭넓게 확인했다.

첫 날 찾은 킨텐인재개발센터에서는 교육시설과 생활관 등 센터 내 각종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교육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교육체계, 취업방향 등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이어 방문한 동방전기공업 코야마 교육센터에서는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생 관리방안 등



일본 선진사례 답사단이 동방전기공업 코야마 교육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곳 센터는 '위험을 아는 것이 안전을 아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을 몸으로 익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쿄전력 홀딩스는 '교육생들 스스로가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답사단은 '기본에 충실한 교육 및 시설과 철저한 안전교육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각 교육센터 관계자에게 교육 운영방안과 교육생 만족도, 주변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을 묻는 시간도 마련됐다.

세 곳을 모두 돌아본 뒤 류재선 회장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이 가

장 인상적이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기공사타운도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기존 전기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관 이사장은 "기본에 충실한 안전교육이 기억에 남는다. 이곳에 와서 보니 우리 업계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나 다름없다"며 "이번에 둘러본 시설들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업계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전기공사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타운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선진사례를 답사할 예정이다.

일본도치기현=박재민 기자jeminp@

전기공사공제조합, 제35차 출자금 증자

25~27일 청약접수...신규 가입기회 제공·좌수부족 해소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출자금 증자를 시행한다.

9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비업체와, 보증한도 부족으로 추가 출자를 원하는 조합원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35차 출자금 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업체나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200좌 이상을 청약해야 한다. 증자를 원하는 기존 조합원은 필요한 좌수를 청약하면 된다. 1좌당 청약금액은 32만5821원이다.

타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보증수수료와 대출금이자 낮아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관심이 있는 업체라면 이번 증자기간을 이용해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게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약을 원하는 업체는 소정의 청약서를 작성한 뒤 조합 각 영업점에 제출한 후 지정된 은행계좌에 청약금을 입금하면 된다.

청약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 홈페이지(www.ecfc.co.kr) 양식마당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윤대원 기자ydw@



구자훈

서울시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국지방자치단체 전기직
정책협의회 임사회장)



전국 전기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지방자치단체 전기직정책협의회준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기직 정책협의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직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연내 정책협의회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준비단은 구자훈 서울시 도시개발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을 임사회장으로 선출하고 협의회의 본격적인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을 뒀다.

"화려하게 협의회를 출범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을 만

요. 정책협의회 발족을 통해 소통 채널을 정리하는 한편 지역간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는 또 "이처럼 전기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칠 경우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에서도 지방 공무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의회 설립을 앞두고 여러 전기직 공무원들께서

LH 임대주택 LED 교체사업 '본격화'

올해 374억원 중 247억원 2분기에 풀려

374억원이 투입되는 LH의 임대주택 조명 교체사업이 2분기에 대거 시행될 계획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6일 LH에 따르면 이달부터 LH 전국 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조명 교체사업 발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올해 투입되는 임대주택의 조명 교체사업비는 총 374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미 1분기에 21억원 수준의 사업이 진행될 바 있으며 2분기에만 247억원 규모가 발주된다. 대부분의 공사가 2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에 106억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사업물량이 풀린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구매 위주로 진행된다고 LH 관계자는 전했다.

총 사업비 374억원 가운데 자체비가 225억원, 공사비가 148억원 정도 투입된다. 2분기에 98억원, 3분기에 42억원의 전기공사 물량이 풀린다.

LH는 10년 단위로 임대주택의 조명을 교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트렌드에 맞춰 교체주기 가도래한 거실등은 LED 조명으로 바꿈으로

써 에너지 효율을 높여왔다. 반면 화장실이나 안방, 베란다 등 여러 조명은 기존 형광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LH는 전국 지역본부에 지침을 내리고 임대아파트 조명 전체를 LED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올해 교체주기인 10년을 채운 조명의 개량사업이 본격화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LH에 따르면 이처럼 LED 조명을 사용할 경우 전용면적 84㎡형 기준 조명 전력소모량이 시간당 940W에서 302W로 낮아진다.

LED 조명 보급 확대로 총 1000만세대가 각각 400W를 동시에 절감한다고 가정하면 400만kW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ED 조명 보급을 통해 신정부의 노후 화력 발전소 폐쇄와 원전 줄이기 등 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LH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임대주택의 조명 전체를 LED로 개선하게끔 지역본부별로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에도 소규모지만 일부 이미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며 "4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주될 계획인만큼 업계가 많은 관심을 보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1231억 고속도로 ITS 사업 중소 참여 독려

도로공사, 사업설명회

도로공사가 1231억원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ITS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9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ITS 사업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올 한해 ITS 시설 구축 및 노후 교체 사업 등에 12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이 같은 주요 사업 시행과 관련해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80여개의 ITS 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도로공사는 참가업체들이 고속도로 ITS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 계약 내용, 사업 참가기준 등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전기직 공무원 간 소통채널 구축 필요"

올해 안으로 정책협의회 설립 목표

드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자훈 부장은 "무조건 일을 크게 벌여놓기 보다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갖는 단체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장은 전국지자체 전기직정책협의회 설립을 처음부터 주도해 왔다.

전국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기직 공무원들의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던 터라, 새로운 정책과 참고할만한 사례 등을 쉽게 공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의 자료를 하나 찾아보려고 해도 채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각 지자체별로 전기공사 등 여러 업무에서 규정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장은 점점 변화가는 시장의 패러다임에 전기직 공무원들 역시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점 스마트하게 변화가는 전력시장에서 공무원들의 역할 역시 커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도시건설은 완료된 상황으로 건설에서 유지관리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전기직 공무원들 간 결속력을 갖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뜻을 합치길 바랍니다."

윤대원 기자

철도공단, 내년도 선로작업계획 조기 확정

코레일과 작업시간확보 협의체 구성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의 선로 상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보수 등 철도시설물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2019년 선로작업계획'을 지난달 말 조기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로작업이란 철도시설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및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선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열차가 주로 운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하루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코레일과 작업시간확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초 75%에 불과하던 선로작업시간 확보율을 이번에 92%로 확대했으며, 2020년까지 98% 수준으로 확대해나간

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충분한 선로작업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작업자는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유지보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없어 철도시설물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또 동일한 작업이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 작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도 따랐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2019년 선로작업 계획 조기 확정을 통해 선로작업자와 철도 운영자의 안전한 선로사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로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국 기자 kimgg@

전기공사협회 네트워크

서울중부회 북부협의회, 해외 문화탐방

서울중부회(회장 김재만) 산하 북부협의회(회장 김영환)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마카오-심천의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김영환 북부협의회장은 "이번 탐방을 통해 협의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협회와 서울중부회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탐방은 홍콩의 스카이라인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빅토리아 피크를 시작으로 마카오, 심천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꾸러졌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회원사들 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시회, 한전과 상호협력 구축 간담회

광주시회(사회장 김종철)는 지난 4일 한전 서광주시사를 초청한 가운데 전기공사업 발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철 광주시회 회장과 배전공사 협력업체, 임철원 한전 서광주시사장과 각 부서 부장들이 참석했다. 김종철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수주와 정부 SOC 예산이 감소해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에서 공사물량 증대 등 전기공

사업계와 상생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철원 이사장은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정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